

중국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11·5규획 기간 중 금융업의 발전 현황
2.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의 주요 내용
3. 평가

주요 내용 ●●●

- 중국정부는 금융체계 메커니즘과 금융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을 발표함.
- 본 규획은 12·5규획 시기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지도사상, 발전목표 및 정책 주안점, 중점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12·5규획 기간의 발전 목표는 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 점유 비중을 5% 내외로 유지하고, 사회용자 규모에서 비금융 기업의 직접용자 점유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
 - ‘금융조정 개선, 현대적인 금융조직체계 구축, 금융시장체계 구축, 금융운영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완비, 금융 대외개방 확대,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안정 유지, 금융발전 환경 개선’ 7개 분야의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함.
- 12·5규획 시기 금융의 핵심개혁 영역은 ‘금리 자유화,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 예금보험제도 완비 등 금융리스크 관리, 채권시장 육성,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영역 진입’ 등임.
 - 금융개혁은 중국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중 금리 자유화와 환율 시장화, 자본항목 태환은 중국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임.
 - 금융안정 유지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리스크 예방시스템이 필요한데, 예금보험제도가 대표적임.
 - 기업들의 용자난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발전이 중요하며, 민간자본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경로의 투자용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자본을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할 것임.

1. 11·5규획 기간 중 금융업의 발전 현황

- 11·5규획 기간 중 중국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종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됨.
- 금융 거시조정과 금융관리 감독이 부단히 강화되었음.
 - 금융감독 능력이 강화되고, 증권선물업의 기초 감독관리 제도가 더욱 완비되었으며, 보험업의 현대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비됨.
 -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방지 및 처리 메커니즘, 금융 동태(動態) 평가 메커니즘이 완비되고, 금융안전망 구축이 추진되면서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선물투자자 보장기금과 보험보장기금이 설립되고 예금보험제도를 추진함.

표 1. 11·5규획 기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발전현황

	2010년	2005년 대비 증가율
금융기관 총자산(조 위안)	101.36	158%
은행업 총자산(조 위안)	94.26	152%
증권업 총자산(조 위안)	2.05	583%
보험업 총자산(조 위안)	5.05	230%
주식시장 상장사(개 사)	2,063	50%
시가총액(조 위안)	26.54	719%
채권발행량(중앙은행 어음 포함)(조 위안)	9.7	120.5%
보험비 수입(조 위안)	1.45	170%

자료: 『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2012. 9. 17), 「国务院」.

- 금융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보임.
 -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이 전면적으로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상장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정책적 은행 개혁과 중소상업은행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금융자산 관리공사 시스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
 - 농촌신용사 재산권제도 개혁으로 새로운 형태의 농촌금융기관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금융업의 삼농(三农) 지원이 더욱 강화됨.
 - 현대 보험기업제도가 기본적으로 마련되면서 원보험, 재보험, 보험중개, 보험자산관리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현대적인 보험체계가 마련됨.

- 금리자유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하이 은행간 단기금리(Shibor)로 대표되는 시장기준율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장화 가격결정 메커니즘 역할을 강화함.
- 환율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수급을 바탕으로 여러 통화를 참고로 하는 변동환율제를 더욱 완비함.

■ 금융업의 대외개방과 협력이 확대됨.

- 금융업의 전면적인 대외개방 약속이 이행되면서 외자 금융기관의 내국민 대우를 실행하고 해외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며, 중국 금융기관도 해외 지사 설립 및 합병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 외환관리 방식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해외무역과 투자 간소화를 진행하고 수입증명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외환강제매각제도¹⁾를 철폐하며, 개인과 기업이 경상외환수입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락함.
-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외 적격기관 투자자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외무역의 위안화 결제 시범지 사업을 시작하였고 양자 통화 스와프를 점진적으로 추진함.
- 금융 대외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금융 표준 및 준칙 제정, 수정에 참여하였으며, 국제 금융관리감독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금융업의 국제지위와 발언권을 계속 높임.

■ 금융법제와 기초 인프라 구축 효과가 두드러짐.

- 금융법률 제도와 법 집행 체계를 점차 완비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다원화하며, 지불체계 구축을 공고히 함.
- 통화 발행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국고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금융정보화 구축과 돈세탁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함.
- 금융회계제도와 금융기관 정보공개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금융통계 데이터 집중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인재를 육성함.

1) 외환강제매각제도는 기업과 개인이 국가가 규정한 외환계좌에 보유하는 외환수입 외 여분의 외환자금을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해야 하는 제도로, 외환지정은행은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자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은행간 시장에서 매각해야 함. 중국에서 1994년부터 시작된 외환강제매각제도는 2012년 4월 국가외환관리국이 본 제도의 정식적인 철폐를 발표하고,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외환수입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 5개 기관은 공동으로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 (이하 규획)을 발표함(2012. 9. 17).
- 5개 기관은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임.
- 본 규획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전략적 목표와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한 이래 편제한 두 번째 금융업 중기(中期)발전 개혁 규획이자 국가급 전문규획임.
- 규획에서는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지도사상, 발전목표 및 정책 주안점에 대해 제시하였고, ‘금융조정 개선, 현대적인 금융조직체계 구축, 금융시장체계 구축, 금융운영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완비, 대외개방 확대,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안정 유지, 금융발전 환경개선’ 7개 분야의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중점 임무를 명확히 제시함.

가. 발전목표

- 12.5규획 기간에 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 점유 비중을 5% 내외로 유지하고, 사회 용자 규모의 적절한 성장을 유지함.
- GDP 대비 중국 금융업 비중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10년 동안 평균 4.46%, 4.42%를 기록함.
- 5%의 의미는 매우 객관적인 목표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개별 지역의 금융업중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웃도는 반면, 중서부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4~4.5% 수준임.²⁾
- 12·5규획 기간 말, 사회용자 규모에서 비금융기업의 직접용자 점유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업의 업계구조와 조직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함.
- 민간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은 점차 증가하였음(‘10·5기간 평균 5.03% → ‘11·5기간 평균 11.08%).
- 중앙은행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용자규모가 2002년 2조 위안에서 2011년 12.83조 위안으로 확대되었는데, 위안화 대출은 2002년 91.9%에서 2011년 58.2%로 약 33.7% 하락한 반면, 위안화 대출 외 기타 방식 용자는 2011년 5.36조 위안으로 사회용자 규모의 41.8%를 점유함.³⁾

2) 『“后危机时代”金融愿景：一行三会预设六大目标』(2012년9월18일), 『21世纪经济报道』.

- 금리 자유화 개혁, 위안화 환율결정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위안화 해외사용을 점차 확대시키고,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을 점차 실현시키며,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시장 수준을 제고함.
- 금융기관을 더욱 개혁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현대기업 제도를 점차 개선하며, 혁신발전능력과 리스크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증권선물기관을 발전시키고 보험기관 혁신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국제경쟁력을 강화함.
-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삼농, 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증가가 전체 대출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하며,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대상과 서비스 영역을 발전시킴.
-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예방시스템, 평가체제 및 처리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고, 기본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설립함.

나. 정책 주안점

- 금융거시 조정을 완비하여 통화정책 목표를 건전하게 하고 물가수준 안정 목표를 중시함.
- 금융기관 시스템과 금융시장 시스템을 완비하여 금융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과학혁신 분야 및 에너지, 신재료 등 신흥산업 혁신 발전 분야 금융 서비스를 지지함.
- 녹색금융 시스템을 지지하고 구축하며, 탄소배출거래소 시장을 점진적으로 설립하여 저탄소금융 발전을 촉진함.
- 금리, 환율, 외환관리 등 금융정책이 내수확대와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본유출입 관리를 개선하여 개인과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함.
- 금융핵심 영역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금리자유화와 환율형성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함.

3) 『“后危机时代” 金融愿景：一行三会预设六大目标』(2012年9月18日), 「21世纪经济报道」.

다. 중점 임무

1) 금융조정 개선

■ 신중한 거시금융의 정책 틀을 구축함.

- 경제 역(逆)주기 현상에 대한 신중한 거시정책 틀을 구축하고,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함.
- 통화신용대출과 유동성관리 등 총량 조절을 거시관리와 결합시켜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경영을 인도하며 신용대출을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방지 능력을 향상시킴.
- 주요 금융기관의 평가방법을 검토 및 제정하고 더욱 엄격한 자본기준을 설정하며, 거시건정성 정책과 미시건정성 관리감독이 서로 조화되는 시스템을 완비함.

■ 통화정책 조절시스템을 개선함.

- 통화정책위원회가 국가 거시조정, 통화정책 구축과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통화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건전하고 다층적인 통화정책 결정자문체계를 구축함.
- 통화정책의 간접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금리, 환율 등 가격 레버리지 역할을 점차 강화하며 통화정책이 수량적 조절 위주에서 가격 조절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 공개시장 조작 목표 체계와 조작 방식을 완비함.
- 예금준비금 수단과 공개시장 수단의 조화를 강화하고, 재대출, 재할인의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지원함.

■ 취약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함.

- 신용대출 정책 실시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신용대출을 늘리고 내수확대를 지원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함.
-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적 서비스업, 과학기술 독자 혁신 분야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재취업, 취학, 빈곤층 돕기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생산과잉 업계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저탄소 경제발전을 지원함.
- 농촌 금융개혁을 심화하고 농촌 금융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삼농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정책성 금융, 상업성 금융과 협력성 금융의 역할을 다하며, 주식, 채권, 선물 시장이 삼농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와 방식을 개척하고, 재정정책으로 삼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금융기관이 소형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신용대출 방식을 혁신하도록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 중소기업 거래시장, 차스닥, 장외시장의 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투자기관과 지분투자기관이 소형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중소기업이 융자수단을 다양화하고 융자경로를 확대하도록 함.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서와 중앙은행 간의 협력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금융감독과 통화정책 간의 조화를 강화하여 관련 정책 법규를 완비하고 금융체계 구축의 중장기 계획을 조정함.

2) 현대적인 금융조직체계 구축

■ 은행업 조직체계를 완비함.

- 정책성 은행, 대형 상업은행, 전국 주식제 상업은행, 지방 중소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등 각종 은행업 금융기관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역할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서비스 조직체계를 마련하며, 농촌 금융 조직체계를 완비함.
- 자본제약과 리스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업 내부통제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은행업 경영관리 수준을 높임.
-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상업은행을 육성하고, 중소상업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높임.
- 지방 중소상업은행이 주민과 소형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촌진(村镇)은행 등 신행 농촌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농촌 신용협력 조직을 발전시킴.
- 실물경제 발전과 직결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전문화, 특색화, 세분화, 브랜드화를 실현하여 기초적인 금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함.

■ 증권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함.

- 증권 및 선물기관, 서비스 기관과 자산관리기구의 기업지배 구조와 내부 관리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조직혁신, 업무혁신, 제품혁신을 독려함.
- 증권사의 신용거래(融资融券) 관리방법과 규칙을 완비하고, 증권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증권사가 상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우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선물회사가 인수합병, 자산 지분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규모와 실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며, 우수한 선물회사의 역외선물 중계업무 추진을 촉진하고 실물경제의 조우추출(走出去) 서비스 과정에서 글로벌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 증권 및 선물시장 중개조직을 건전화하고, 자산관리기관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창업투자와 지분투자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모펀드 기구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함.
- 증권회사, 펀드관리사 등 금융기관이 자산관리 업무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고 선물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추진하도록 검토하며, 펀드 공모 관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방안을 연구하며,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 등 중장기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되도록 추진함.

■ 보험업 기관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

-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 영역이 광범위하며 신의성실의 경영,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고 종합 경쟁력을 갖춘 현대 보험업을 구축함.
- 양로, 건강, 책임, 자동차, 농업 등 전문 보험회사 육성을 장려하고, 신용보험 전문기관을 육성함.
-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보험사가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조건을 갖춘 국유자본, 민간자본, 역외자본의 보험사 투자를 지원함.
- 보험 중개기관의 전문적인 경영을 독려하고 단독 보험대리기관과 보험판매회사의 설립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금융업의 종합경영 시범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종합경영 시범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종합금융 서비스 역량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중신그룹(中信集团公司)과 광대그룹(光大集团公司)이 심층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업 종합경영 리스크 감시체계와 각종 업무의 리스크 한도와 수용정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함.

3) 금융시장체계 구축

■ 주식시장 완비에 주력함.

- 주거래 시장과 중소거래 시장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차스닥 시장 구축을 추진하며, 주식양도대리시스템 시범지 사업을 확대하고, 감독이 통일된 장외거래시장을 서둘러 구축하며 국제판 시장 건설을 모색함.
- 등급이 다른 시장 간의 시장 전환메커니즘과 시장 퇴출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주식 발행제도의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발행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심사를 점차 간소화하며, 신주 발행가격 심사제도를 완비하고 발행 정가의 합리성을 높임.
- 우선주 제도를 마련하고, 상장사의 채용자 제도와 투자자 회수제도를 완비하며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유도함.

■ 채권시장 육성

- 채권발행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정보공개 수요를 강화하며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함.
- 채권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품혁신과 다양화를 추진하며,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 통화, 외환 및 금 거래시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유도함.

- 통화시장의 각종 자시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통화시장의 인프라 건설을 더욱 강화하며, 통화시장 관리제도, 기관 투자자 구조, 통화시장 중개기구를 적극적으로 육성함.
- 외환시장 구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상품을 다양화하고 거래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중소기업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지원하며 외환시장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금시장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금시장 보관, 결제, 금계좌 서비스체계를 완비함.

■ 보험시장을 적극 육성함.

- 보험상품을 다양화하며 보험서비스 영역을 확대함.
- 개인생명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기업연금업무 및 주택, 자동차 소비와 관련된 보험업무를 적극 육성하고 개인 소득공제형 양로보험(个人所得税递延型养老保险) 시범지 사업을 전개함.⁴⁾
- 공공이익과 관련된 환경오염, 공중안전 등 책임보험 육성을 서두르고, 중대 재해보험체계를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중대 재해리스크 분산과 보상메커니즘을 완비함.
- 자산관리상품 혁신을 장려하고 보험자금이 부동산, 미상장기업 지분에 참여하도록 함.
- 보험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비보험 금융기업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양로, 의료, 자동차 서비스 등 기업의 지분참여를 지원함.

■ 선물시장과 금융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함.

- 상품선물시장을 점진적으로 육성하고 경제발전 수요, 시장조건을 갖춘 상품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품지수선물, 옵션상품, 원유선물, 탄소배출권선물 등을 육성함.
- 금융 선물시장 구축을 강화하고 주가지수선물의 안정적인 운영하에서 국채선물, 기타 권익형 금융선물 옵션상품을 개발하고, 금리, 외환선물 옵션상품 등 금융파생상품을 발전시킴.

4) 전문가 분석: 현 단계에서 면세한도액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되는데, 면세한도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국가 조세수입에 지장을 주게 되고, 면세한도액이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이는 고소득층이 개인양로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로금 세제에 따른 역행적 재분배도 받아들여야 마땅함(귀진(国金) 증권 애널리스트).

- 은행간 시장신용 리스크 완화수단(CRM)을 계속 모색하고, 관리강화와 리스크 예방이라는 전제하에 장외신용 파생상품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시장 가격결정과 리스크 관리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함.

4) 금융운영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완비

■ 안정적으로 금리자유화 개혁을 추진함.⁵⁾

- 중앙은행 금리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금리 파급경로를 원활히 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가격 책정 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에 따라 건전한 금리 가격책정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금리자유화 개혁이 ‘개방, 형성, 조정 가능(放得开 行得成 调得了)’의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위안화 환율 결정메커니즘을 완비함.

- ‘주동성, 통제가능성, 점진성(主动性、可控性、渐进性)’의 원칙에 따라 위안화 환율 결정메커니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통화바스켓 관리를 참고한 변동환율제를 완비하고 위안화 환율 쌍방향 변동 탄력성을 강화함.⁶⁾
- 신흥시장 통화 대비 위안화 직접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 신흥시장국과 주변 국가 통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등록되도록 적극 추진함.

- 해외자본 유동제한을 완화하고 자본유출입 균형 관리체계를 건전화하며 대외 채권 채무관리를 완비하여 체계적으로 위안화 자본수지 태환성을 추진하고, 개인용 환율 주주권 확대를 핵심으로 개인 기타 자본수지의 해외거래를 더욱 확대함.

- 외환보유고의 다각적인 사용 경로와 방식을 모색하고, 외환보유 경영관리를 완비하며, 신중한 평가를 기반으로 다원화된 투자를 추진하고, 통화자산 분배를 제고하고 투자수익을 높임.

5) 전문가 분석: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는 향후 런던 은행간 단기금리(LIBOR)와 비슷한 시장 기준금리로 자리 잡아 자금가격 책정 메커니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취홍빈(屈宏斌) HSBC 대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6) 전문가 분석: 향후 홍콩에 출시되는 위안화 환율의 금융파생상품이 늘면서 위안화 역외시장의 환율변동폭이 커질 것이며 위안화 환율변동성이 증대되면 역외와 역내 시장의 차이여지가 작아짐(류리강(刘利刚) ANZ Bank 대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 금융기관 개혁을 심화함.

- 대형 금융기관의 개혁을 심화하고,⁷⁾ 회사 기업지배를 더욱 완비하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고위임원의 직책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인 정책결정, 집행, 균형-견제 메커니즘을 구축함.
- 금융기관 지분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국가가 지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분보유 비율을 연구하며 국유금융자산 관리체계를 완비하고,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상업화 전환을 촉진함.
- 국유보험공사 주식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회사의 상장을 지원함.

- 민간자본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체제개혁과 증자, 지분확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춘진은행, 대출회사, 농촌자금상호기금공사(农村资金互助社) 등 새로운 농촌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

5) 금융대외개방 확대

■ 금융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함.

- 대외개방 시기, 역량, 흐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금융해외개방과 중국 경제발전 수준, 시장육성 수준, 금융관리감독 능력이 상호 조화되도록 함.
- 위안화 환율 결정메커니즘 완비, 위안화 자본수지 태환성과 위안화 해외 사용 속도와 선후 순차를 잘 처리하고, 통화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금거래 시장의 대외개방을 더욱 추진함.
- 금융기관의 ‘조우추취’ 관련 제도를 완비하고 금융기관이 효과적인 해외개발전략을 취하도록 유도하며, 국제적 인재를 확보하고 대형 해외 금융기관을 점차 발전시킴.
- 금융기관의 국제화 경영수준을 높이며⁸⁾ 수출품의 세대교체와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대외 금융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도록 촉진함.

■ 위안화의 해외 사용을 확대함.

- 해외 직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업무를 확대하며, ‘내수중심, 선이후난(先易后难), 감시강화, 리스크 통제’ 원칙을 견지하고, 위안화 해외사용을 추진함.

7) 전문가 분석: 은행은 전통적 예대금 업무의 전환, 종합화와 국제화로 전환, 관리의 전환 등 3개 분야의 전환을 이루어야 함. 따라서 향후 은행은 전통적 예대금 업무에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중간업무 수입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함(무화(沐华) 광파(广发) 증권 은행업 선임애널리스트).

8) 전문가 분석: 중국은행들의 해외진출 가속화 속에서 위안화 해외자금 이용경로와 채권채무 관리프레임이 관건임(귀텐용(郭天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 관리중심 주임).

- 역내 은행업 금융기관이 해외 위안화 대출업무 확대를 지원하며, 개인 위안화 해외결제 업무를 추진하고, 위안화 대외 채권채무 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며 해외기관 위안화 자금운영 경로를 확대함.
- 역내기관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발행을 점차 추진하고 해외기관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발행을 추진하며 관련 국가들이 위안화를 국제 보유고에 편입시키는 것을 지원함.

■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상하이-홍콩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며, 홍콩을 위안화 업무센터와 국제 자산관리센터로 발전시키고, 마카오-홍콩-광둥 지역 간 긴밀한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대만 양안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양안 통화결제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샤먼(厦門)에 양안 금융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함.

■ 금융 안정이사회,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금융기준 수정 및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중앙은행,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다자간 금융과 통화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금융협력 과정을 추진함.

6)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안정 유지

■ 금융감독을 지속 강화함.

- 은행은 신(新)감독 기준을 추진하고 감독수단과 지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은행 리스크 식별, 계량, 평가, 감시, 통제, 경고예측 능력을 제고함.
-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른 상업은행별 분류 감독을 실시하고,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SIFI)⁹⁾의 자기자본비율 감독 요구를 높이고 신자본 협정¹⁰⁾ 실시와 리스크 측정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9) 국가 또는 글로벌 규모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상에서 중요성이 높아 파산 시 큰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칭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FSB, IMF, BIS)들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 세계의 중요한 금융회사들을 SIFI로 지정,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SIFI는 세계경제 차원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G-SIFI(Global SIFI)와 한 국가 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D-SIFI(Domestic SIFI)로 구분되며, 2011년 중국은행(中国银行)이 G-SIFI에 편입됨.

10)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시행)(이하 자본방법)《商业银行资本管理办法(试行)》(以下简称《资本办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식 BIS 신자본협정에 해당됨.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방법은 모든 상업은행이 2018년까지 전면적인 기준에 도달하게 할 계획임. 중국 은행업이 새로운 자본감독기준을 점차 실현하는 것은 국제금융감독개혁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행업의 리스크 방비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며, 상업은행의 전략적 경영관리 전환을 앞당길 것임. ‘자본방법’은 상업은행 자기자본비율 감독요구를 네 가지로 분류함. 첫째, 최저자본요구로 핵심1급 자기자본비율, 1급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5%, 6%, 8%에 맞추고, 둘째, 보유자본요구와 역주기(逆周期) 자본요구는 각각 2.5%와 -2.5%로 정하며, 셋째, SIFI 부가자본요구를 1%로 정하고, 넷째, 개별 은행의 리스크 현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BIS 자본요구임. ‘자본

-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주주와 실제 지배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업은행 재테크와 위탁 대출업무를 규범화하고, 은행시장의 진입 감독을 더욱 강화함.
- 증권선물회사 순자본 감독을 강화하고 순자본을 핵심으로 리스크 통제 지표시스템을 완비하고 증권 선물시장 운영감독과 리스크 방비를 강화하고 시장조작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보험업 상환능력 감독체계를 건전화하고 자기자본 충당과 규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리스크를 중심으로 분류감독 제도를 완비하고 보험사 기업지배 감독제도와 표준을 완비하고 기업지배에 대한 감독제도의 집행력을 현격히 제고함.

■ 금융감독 공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킴.

- 중대한 정책과 법규 문제에 있어 금융감독 기관간, 거시조정 부서간 공조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금융 기관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감독정책을 통일시키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줄임.
- 종합경영과 신제품, 신업무의 감독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상품의 기능감독을 모색함.
- 자국 및 타국 화폐의 해외자금 이동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감독을 강화하며, 금융리스크 처리 협력을 강화함.

■ 체계적 금융리스크의 사전경보를 강화함.

- 중국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모니터링 평가방법과 조작체계를 구축하고 업종간, 시장간, 국경간 금융리스크 모니터 평가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중요한 리스크의 예측능력을 강화함.
- 교차성 금융업무와 금융 홀딩스사의 감독 직책과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금융기관이 정부성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리스크에 주의하며 재정 금융리스크의 상호 전이를 방지함.
- 그림자은행 체계의 통계모니터, 리스크 평가와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방법' 실시 이후, 중국대형은행과 중소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감독요구는 각각 11.5%와 10.5%인데, 이는 BIS가 정한 최저감독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 현행 감독요구와도 일치함. '자본방법'은 2013~18년 6년간을 자기자본비율 과도기로 두어 상업은행이 2018년까지 자본감독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을 갖춘 은행이 먼저 기준에 부합하도록 독려했음. 과도기 동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은행은 단계별 도달시점을 제정함. 그 밖에 '자본방법'은 소형기업, 개인대출, 신용카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가중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소형기업 리스크 가중을 100% → 75%, 미사용 신용카드액의 신용전환 계수에 대한 리스크 가중을 50% → 20%와 50%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함. 개인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가중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과 둘째 주택의 리스크 가중 차이를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50%로 규정하였음. 또한 기타 상업은행의 채권 리스크 가중을 원래의 20% → 25%로 상향 조정하고, 그 중 3개월 제한 채권 리스크 가중치는 0% → 20%로 상향 조정함.

■ 예금보험제도 완비 및 금융기관 시장 퇴출체제를 구축함.

-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대출보험 입법과정을 서두르며 적절한 시기에 「예금보험조례」를 출범시키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기능과 조직방식을 명확히 함.
-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선물투자자보장기금, 보험보장기금 관리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회사 리스크 처리 조례」 초안 마련을 검토함.
- 중국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 파산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시장 퇴출절차를 규범화하며 행정 퇴출과 사법 파산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함.

■ 지방정부의 금융감독 의식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소액대출 회사와 담보회사 등 기관의 관리 직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리스크 처리 책임을 강화함.

■ 민간대출이 제도권 금융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금리대출, 불법자금모집, 지하금융, 불법증권 등 불법 금융행위를 단속하고, 담보회사, 전당포업 등 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양호한 금융질서를 유지함.

7) 금융발전 환경 개선

■ 농업보험 입법을 서두르고, 금융소비자 보호입법을 강화하고,¹¹⁾ 민간대출, 불법금융행위를 규범화하는 법규 규장을 제정하는 등 금융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금융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며 금융 회계, 통계제도를 규범화함.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자기금법」, 「선물거래 관리조례」 등 금융 법률-법규를 한층 더 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선물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정으로 사법해석을 추진함.

■ 지불결산 인프라 완비를 서두르고 2세대 중앙은행 간 지불시스템과 해외 위안화 결산시스템을 구축하며, 비현금 지불 수단응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좌실명제를 완비하며 비금융기관의 지불서비스 종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

11) 전문가 분석: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홍보교육과 정보공개로 통해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식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 금융기관의 행위를 엄중 조사 및 처벌해야 함(쉬샤오화(徐晓华) 중앙재경대학 보험학원 부교수).

- 국가금융 신용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하며, 금융업 통일 결산보고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고 중국 신용평가기관 육성을 촉진하고 경쟁력, 공신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농촌신용체계를 완비하고, 국제 표준과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돈세탁방지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특정 비금융업계의 돈세탁방지 제도를 검토, 마련함.
- IMF가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핸드북』 제6버전 요구에 따라 관련 통계제도를 개정하고 통계 재무제표 편제 틀과 공표 표 격식을 갱신하고, 금융종합 통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완비함.
- 금융정보화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거래를 보급하며 은행카드 칩(Chip)화 전환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융정보화 수준을 제고함.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제도와 조직기구 구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연구 업무수준을 제고하며, 금융 인재풀 구축 강화 및 업계와 협회 등 자율조직 설립을 강화함.

3. 평가

- 중국의 경제 발전방식 전환, 제도혁신, 소비수요, 내수메커니즘 모두 금융개혁과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금융개혁은 중국 경제문제 해결의 핵심요소임(홍하오(宏皓) 베이징교통대학 객좌교수).
- ‘규획’ 중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분야인 금리자유화와 환율시장화는 중국 금융개혁의 가장 큰 도전영역임(이췌룽(易宪容) 전임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발전실 주임).
 - 금리자유화와 환율시장화가 큰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엄격히 관리 중이며,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이 당면한 문제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예금금리 제한과 관계가 깊음.
 - 효과적인 금리자유화와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은행이 여러 신용에 대해 리스크 가격을 결정하고 리스크 통제수단을 형성해야 함.
 - 금리자유화 개혁이 ‘개방, 형성, 조정가능’ 원칙에 따라 진전을 이룬다면,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은 더욱 완비되고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도 점차 실현될 것임.
 - 반면 ‘규획’에서 ‘금리자유화와 종합화의 경영에 있어서의 협조, 바젤협회와 자산증권화, 경영화의 경영 및 추진에 있어서의 협조’ 등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공표세척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힘(루정웨이(鲁政委) 홍업은행 수석경제학자).

■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와 환율형성 메커니즘 시장화가 우선되어야 함(장모난(張萊楠)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세계경제연구실 부연구원).

- 중국은 금리시장화와 환율시장화의 상대적인 낙후로 위안화 유출이 유입보다 큰 불균형한 상황이며, 이는 위안화 회수경로가 원활하지 않고, 역내 금융시장의 제한적인 개방을 반영한 것임.
- 위안화가 완전한 자유태환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내와 경외 시장에 시장분할 현상이 존재하며, 무역 항목에서 홍콩 역외 위안화(CNH) 외환시장과 내륙 위안화(CNY) 외환시장이 병존하고, 불가피하게 환차익 공간이 형성됨.
- 금융시스템 자본이용 효율성은 높지 않고, 직접융자비중은 매우 낮으며 시장 내부의 투자용자 주체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여 금융 취약성은 매우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져오는 금융충격은 정부재정 소득하락, 은행유동성 위기, 대출비용 상승, 채무위기를 유발할 것이고, 해외 위안화 시장의 발전과 자본항목 개방은 중국 내 거시정책에 복잡함을 가중시킬 것임.
- 중국 금융시장의 낙후와 금리, 환율결정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금리와 환율형성 시스템을 완비한 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야 함.

■ 예금보험제도 완비 등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규획'은 금융안정 유지 강화를 제기하였는데, 그중 예금보험제도 완비와 금융기관 시장퇴출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예금보험조례」를 마련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기능과 조직방식을 명확히 하였음.
-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과 농업 영역에 대한 집중, 은행업무의 다원화가 진행될수록 객관적으로 다양한 금융리스크 예방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그중 예금보험제도가 대표적으로 중요함(바수송(巴曙松)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

■ 직접융자비중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채권시장의 발전에 있음(조우원성(周俊生) 재경평론가).

- '규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접융자 확대는 중국 금융체제 개혁 중 견고한 정책으로, 직접융자 비중 제고를 통해 실물경제를 지지하여 중국 자본시장을 발전시킴.
- A주식시장의 저조 현상 중 중요한 원인은 직접융자의 발전이 주식시장에만 집중되는 데 있음.
- 주식시장이 큰 발전을 이루고, 투자상품도 다양화되었으며, 중소판, 차스닥 시장이 설립되고, 소기업을 위한 '제3증시' 격인 신삼판(新三板)¹²⁾ 시장도 구축되었으나, 시장의 투기현상과 가격조작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시장 투자

12) 신삼판(新三板):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지역의 비상장 유한회사가 주식대리양도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는 시범시장을 지칭함.

를 통해 개인적 부를 실현할 수 없음.

- 시장관리 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기업들이 주식시장과 더불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영역 진입을 확대해야 함(홍하오(宏皓) 베이징교통대학 객좌교수).

- 2011년 원저우 민간 대출위기 이후 각 지역마다 민간금융 리스크가 연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지역 은행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융자난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 독점현상을 해결해야 함.
- 민간자본(신탁, 담보, 소액대출회사 전당포, 지하금융점포)은 커다란 투자역량이자 향후 핵심발전 분야이므로 여러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다양한 경로의 투자용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자본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융자난을 해결해야 할 것임. KIEP

참고자료

- 『7大关键词解读金改“十二五”』 (2012年9月21日), 「中国经营报」.
- 『五大步 金融改革加快市场化步伐』 (2012年9月21日), 「四川经济日报」.
- 『宏皓：金改是解决经济问题的金钥匙』 (2012年9月19日), 「每日经济新闻」.
- 『张荣楠：金融改革的逻辑应遵循“先内后外”』 (2012年9月19日), 「每日经济新闻」.
- 『周俊生：提高直接融资比重的重点应放在债券市场』 (2012年9月19日), 「每日经济新闻」.
- 『易宪容：十二五金改要靠利率市场化“迈好步”』 (2012年9月19日), 「每日经济新闻」.
- 『金融“十二五”规划发布六大关键领域将深化』 (2012年9月18日), 「新华网」.
- 『“后危机时代”金融愿景：一行三会预设六大目标』 (2012年9月18日), 「21世纪经济报道」.
- 『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 (2012年9月17日), 「中国人民银行网站」.

자료 정리: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김선진 (98sjkim@naver.com)